

등장국가



케프리아 제국

케프리아 제국은 아우로라 대륙의 크고 작은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만들어진 군국주의 국가다. 이들은 지배한 국가의 식민지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부려먹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군국주의 국가로 변화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계급을 부여했고, 그중 하위계층들은 대부분 식민지인들의 후손들과 케프리아의 통치체제에 불만을 갖고 반기를 드는 시민들이었다.

케프리아의 정부는 계급별 분란을 유도하여 국가 통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만든 키클롭스의 비대칭 전력인 그래비티 코어를 탈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과도한 인체실험 및 사이보그와 같은 전략병기에 힘을 쓰고 있다. (지정학적인 이유로 전차와 같은 기갑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다만 거대한 산맥과 복잡한 해안선이란 천해의 장벽을 두르고 있는 키클롭스와의 전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역을 하며 화전양면전술을 꾀하고 있다.

키클롭스

서쪽 국경에 거대한 산맥이 있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
500 년전 케프리아에서 벌어진 내전중에 도망친 이들이 케프리아의 동쪽 산맥
너머로 피신하여 건국하였다.

이곳엔 초고대문명의 유적지가 잠들어 있다

유적이 발견되고 이들 중 지식을 갖고 있던 소수가 유적의 오파츠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래비티코어의 존재를 발견했고 오파츠를 통해 대륙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유석을 원료로 그래비티 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비티 코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술에 응용될 수
있었고 키클롭스의 전반적인 산업에 지대한 변혁을 가져왔다.

세부 설정

부유석

아우로라 대륙 전역에 발견되는 물질인 부유석은 행성의 특수한 자기장으로 인해 형성된 물질이며 공중에 부유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특징이 초전도체와 유사하여 이를 응용하려 했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아 관련 기술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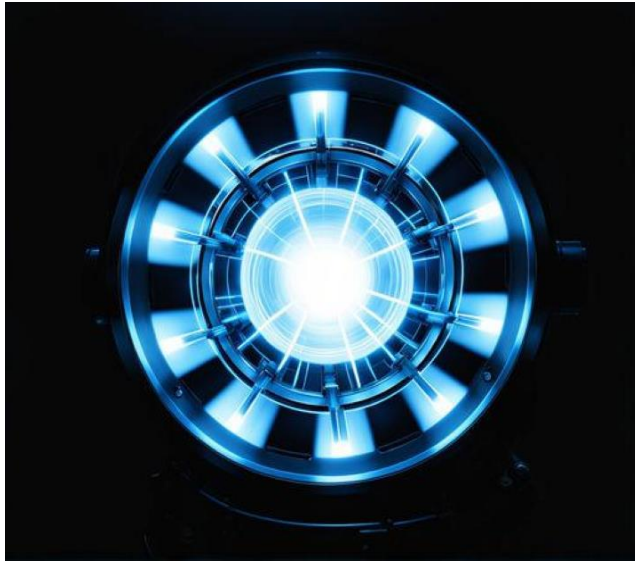
또한 반응성이 높아 부유석을 제외한 다른 물질과 접촉하면 쉽게 부서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물질로 인식됐다.

초고대문명과 오파츠

키클롭스에서 발견되는 유적과 오파츠는 부유석을 주 자원으로 쓰는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다.

이들은 특정 자기장에만 반응하는 부유석을 찾기 위해 우주 곳곳에 무인 우주선을 보냈고 이 우주선의 일부가 과거 키클롭스의 지형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한 지각변동으로 인해 우주선은 땅속으로 묻히게 되었고 훗날 키클롭스인들에게 발견되게 된다.

그래비티 코어



키클롭스의 주요 동력원인 그래비티 코어는 초고대문명의 오파츠를 통해 부유석을 원재료로 만들어진 원자로이다. 이 코어는 에너지를 필요로 대부분의 장비의 동력원으로서 사용되며 일부 군사용 첨단무기에도 사용된다.

그래비티 코어는 오직 오파츠를 통해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비티 코어를 생산하는 오파츠는 국가차원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그래비티 코어를 사용하려면 정부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그래비티 코어로 만들어진 첨단 장비들은 각국으로 수출되며 이는 키클롭스가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수많은 국가들이 이 그래비티 코어를 카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오직 키클롭스의 오파츠로만 생산되기 때문에

세계관의 주요 무기체계

- 총화기

아우로라 대륙의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대륙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열병기다.

- 에너지 무기



(예시 이미지: 던전앤파이터 레이저 라이플)

키클롭스 내에서 생산되는 그래비티 코어의 고에너지를 이용한 무기이다. 금속 탄자를 전자기력으로 가속하여 발사하는 레일건, 고에너지를 광선의 형태로 발사하는 레이저 빔캐논 등이 있다.

- 아머드 슈트



(예시 이미지: 아이언 뭉거)

키클롭스의 군수기업인 이노테크 인더스트리에서 개발중인 강화슈트.

주 동력원으로 그래비티 코어를 사용한다.

단순히 근력을 올려주는 스켈 슈트와 달리 크기도 크고 외부의 장갑을 통해
사용자를 보호한다.

부피가 커진 만큼 슈트에 무장을 장착하여 전투력을 증강시킬수도 있다



(예시 이미지: 메탈슬러그 7 슬러그 아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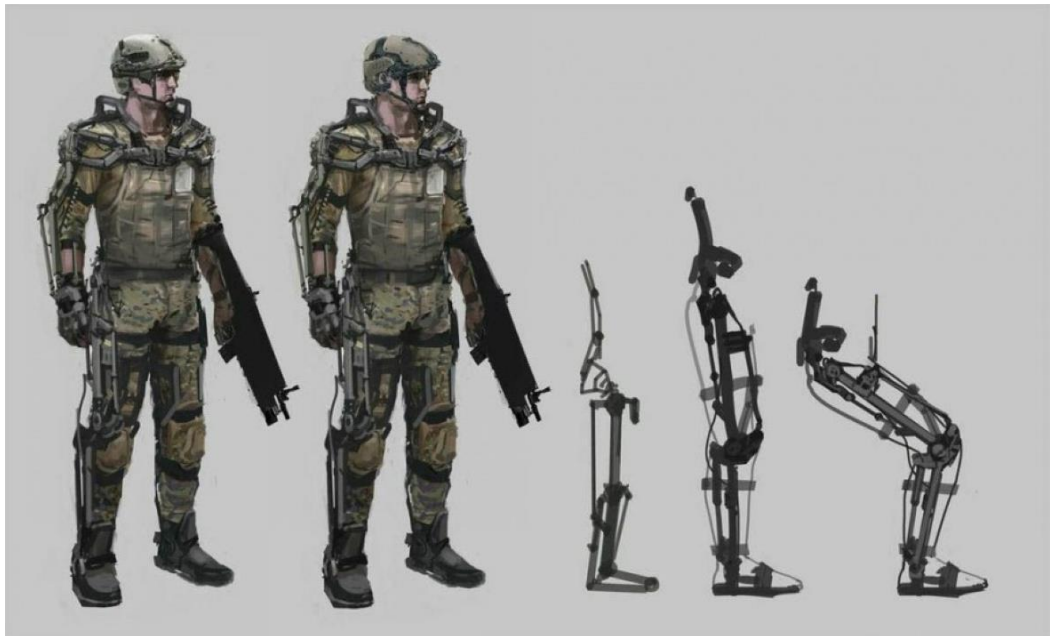
아머드 슈트의 프로토 타입은 조종사에게 지나치게 큰 충격과 과한

무장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부착한 무장을 지탱하기 위한 하체부분이 부실하여 이동속도가 느리다.

반면 완성품은 무장을 간소화시키고 장갑을 증강시켜 좀더 움직이기 용이한
설계로 개량되었다.

- 스켈 슈트



외골격을 통해 착용자의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슈트이다.
키클롭스군에서 중장비를 사용하는 보병에게 주어진다.

키클롭스 특수전사령부

키클롭스군의 특수부대

각 부대별로 상징마크가 있다.

각각 눈, 귀, 입을 상징한다.

1. 오쿨러스 부대(눈)

키클롭스의 산하부대중 기동타격을 전담으로 한다.

구성원들은 키클롭스 특수전사령부의 엘리트들을 차출하여 선발된다.

이들이 주로 맡는 임무는 난이도가 높은 소규모의 작전들을 위주로 진행한다.

주인공인 다니엘, 레이첼, 게리, 제이크가 이곳 소속이다.

2. 아우리스 부대(귀)

키클롭스 산하부대중 정보/첩보전을 전담으로 한다.

이들이 주로 맡는 임무는 정보 수집으로 첩보원들을 파견하거나 해킹 등의 정보전을 통해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전을 설계한다.

게임 내에서 브리핑을 전담하고 있는 오퍼레이터 '닐슨'이 소속되어있는 부대다.

3. 오리스 부대(입)

키클롭스 특수전사령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공대다.

이노테크 인더스트리

키클롭스 군부의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군수기업이다.

이들은 주로 그래비티 코어를 이용한 에너지 무기를 생산하며 사용자의 근력을 올려 중장비를 들 수 있게 해주는 스켈 슈트도 이곳에서 생산한다.

이들은 스켈 슈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머드 슈트를 개발중에 있다.

주요 인물

CEO: 이노테크 인더스트리의 회장.

막강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병기를 만드려고 한다.

그렇지만 키클롭스의 주요 동력원인 그래비티 코어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으로 회장은 키클롭스의 적국인 케프리아와 비밀리에 내통하여 케프리아에게 제공받은 신체 증강 약물을 통해 이노테크 인더스트리의 경비대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병들을 통해 기존의 키클롭스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키클롭스의 권력자가 되려고 하여 오파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래비티 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드레드 교관: 전 키클롭스 특수전사령부 교관 출신인 이노테크의 경비대장.

과거 오쿨러스에 소속되어 작전을 진행하던 중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더 이상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키클롭스 특수전사령부의 훈련교관으로 차출되었다.

키클롭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케프리아를 상대하기 위해 블랙옵스의 필요성을 느꼈고 특정 범죄조직을 블랙옵스로서 편제하려는 계획을 짰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드레드 교관은 해당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을 설계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바람에 블랙옵스 창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드레드 교관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키클롭스 정부의 관료는 의도적으로 해당 범죄조직에게 드레드 교관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넘겼고 드레드 교관에게 양심을 품고 있던 범죄조직에 의해 드레드 교관은 처자식을 잃게 된다.

얼마 후 해당 범죄조직은 체포되었지만 키클롭스 정부측은 이들에게 접근해 사법거래를 제안한다. 사법거래를 받아들인 범죄조직은 결국 블랙옵스로 편제되게 된다.

드레드 교관은 이들에게 더 막중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부에선 이를 묵살하였고 드레드 교관은 키클롭스 상부의 부조리함을 느껴 군을 떠나게 된다.

매일매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드레드 교관에게 이노테크의 CEO가 접근하게 된다.

드레드의 가족을 죽인 범죄조직과 관련이 있었던 CEO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고, CEO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게된 드레드 교관은 절망하고 분노하게 된다.

CEO는 드레드 교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었고 드레드 교관은 제안을 받아들여 이노테크의 사병조직을 관리하게 된다.